

전남도-9개 공공기관 '전국체전 성공' 맞손

안전·홍보·인적물적 자원 지원 공동 협력 다짐 7-9월 경기장 시설물 합동 특별 현장점검 방침

전남도는 4개월 앞으로 다가온 '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9개 공공기관과 함께 안전·홍보·인적물적 자원 지원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김대중 도교육감, 이충호 전남경찰청장, 이동길 해군3함대 사령관 등 9개 공공기관장(지부장)이 참석했다. 협약 참여 공공

기관은 전남도교육청, 전남경찰청, 해군3함대,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본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본부 등이다. 협약에 따라 ▲인적·물적 자원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기장·시설 안전점검 ▲협약

기관 상호 교류 및 공동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남도는 공공기관들과 함께 올해 15년 만에 전남에서 개최될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 국민이 화합하고 감동하는 대회가 되도록 선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장 시설물 특별점검반을 편성,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국체전 성공 개최

를 위해 뜻을 모아준 각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뜨거운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전 국민 스포츠 대축제인 전국체전이 '국민감동체전',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7일간 목포를 중심으로 22개 시·군, 70개 경기장(49개 종목)에서 분산 개최된다. 또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6일 동안 12개 시·군, 38개 경기장(31개 종목)에서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코로나 일상회복 등으로 4만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대거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정 기자

장마철 사고 대비 산지 태양광 시설 점검

전남도, 재해 우려지 300m 내 501개소 대상

전남도는 17일 "올해 슈퍼 엘니뇨 영향으로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측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4일간 도내 산지 태양광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산지 태양광 시설 3천85개소 중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재해 우려 지역에서 300m 이내에 위치한 501개소를 중점 점검한다. 산지 태양광은 비탈진 산을 깎아 설치하므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산사태나 토사 유출로 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시설물이다. 전남도는 에너지산업과, 해상풍력산업과, 에너지공대지원과 등 에너지산업국 소속 3개 부서가 여수, 나주, 강진, 해남 등 도내 18개 시·군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서와 11개 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태양광발전시설 내·외부 비탈면 토사유출 및 침식 현상 ▲오벽 배부름 현상 및 균열 ▲페널시

설 허단부 식생녹화 상태 ▲발전시설 내 배수로·집수정 등 배수체계 관리 상태 등이다. 특히 기존에 토사 유출 등 생활권 피해가 우려되는 허가지지를 중점 점검하고 비상 대응체계 구축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점검 결과 조치가 필요한 대상지는 재해방지 조치명령 후 우기 전까지 이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501개소를 제외한 3천400여개 시설에 대해서도 시·군 자체적으로 점검 기록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기상 변화에 따라 산림재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군에서도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시설 보완 및 안전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먹는물 분야 국제수련도 '최우수'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18일 "미국 환경자원학회가 주관한 먹는물 분야 국제수련도 평가에서 8년 연속 최우수기관 국제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미국 환경자원학회가 운영하는 먹는물 분야 국제수련도 평가에 참여한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암모니아성 질소 등 이온류 6개 항목 ▲클로로포름 등 소독부산물 2개 항목 ▲수은 등 금속류 5개 항목 ▲벤젠 등 유해유기물질 4개 항목 등 총 17개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6년부터 먹는물 분야 국제수련도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학생 야외 버스킹 광주 5개 구별 학생 참여 예술 활동 프로그램인 '학생 야외버스킹' 행사가 지난 17일 오후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열려 관객들이 청소년들의 공연을 즐기고 있다. /김애리 기자

광주시, 10월까지 선도농업 모델화 교육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18일 "오는 10월까지 지역 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선도농업 모델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촌지역에서 선도농업인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품목별 우수 농업기술 모델을 발굴해 분야별(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선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10월까지 선도농업 팀빌딩을 위한 소통교육, 분야별 선도농업 모델화 현장

컨설팅, 영농현장 중간 피드백 교육, 우수 경영농장 현장학습, 선도농업 모델화 사례 발표 공유 등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전체 과정 중 6회는 현장을 찾아 컨설팅을 진행하고, 1회는 우수 경영농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위주로 진행한다.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을 통해 청년농업인, 품목 전문농업인 등에게 현장 전문 농업기술 전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2027년까지 100명의 선도농업인을 육성한다. /박선강 기자

광주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공모 2곳 지원

광주시가 소아청소년병원 진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을 공개 모집한 결과 2곳이 지원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보조사업자 모집에 2곳의 의료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광주시는 오는 20일 제안 내용 등을 검토·심의한 뒤 23일 1개 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5년까지 심야 병원을 운영하며 연간

최대 15억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올해는 9월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5억여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은 평일과 휴일 24시까지 2명 이상 전문의가 소아, 청소년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1년에 3일 이내로만 휴진할 수 있다. 광주시는 소아환자의 외래진료를 24시까지 제공함에 따라 경증 소아환자의 야간 진료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최종 선정된 의료기관을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야간까지 소아 진료를 하는 병원으로 전국에서 34곳을 운영 중이지만 광주에는 한 곳도 없다. 이 때문에 경증 소아환자의 88.2%가 야간·휴일에 응급실을 내원하고 있어 비용 부담과 함께 전문적인 소아진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4월 26일 '광주 24시 어

린이 안심병원 조성계획' 등 어린이 공공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또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동네 로컬병원에서부터 상급 종합병원까지 실질적인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로컬어린이병원-24시 어린이병원-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이어지는 '어린이 안심 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선정과 동시에 달빛 어린이병원에도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한국바스프 '전남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최우수상

기업의 품질 경영 활동 촉진과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개최한 '2023 전남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한국바스프 등 15개 분임조가 최종 선정됐다. 대회에는 (주)LG화학, 한국바스프, 한진KDN 등 11개 사업장에서 총 18개 분임조, 150여명이 참가해 품질 개선 활동 사례를 발표하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최우수상을 받은 한국바스프 '유레카' 분임조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 공

정 유틸리티 개선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원(석탄) 절감에 힘입어 연간 약 2억 원 규모의 절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주)LG화학 여수공장 '아우토반+새롬' 분임조를 비롯한 14개 분임조가 차지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15개 분임조는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순천에서 열린 '제43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전남 대표로 출전한다. /김재정 기자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한라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 대비해야 합니다

일시 거주비(숙박비+숙비) 하루 10만원(일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8%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를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복심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지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베를지점 062)381-1971-2	양동선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